

해외 거주 미국인, 고국으로 '백신여행'

미국 백신 여유 생기자 불편 감수 일부는 해외에도 보내달라 요구 중남미 등 부자 외국인들도 가세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접종 기회가 열리자, 해외에 체류 하면서 백신을 맞지 못한 미국인들이 속속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이런 미국행 비행기에는 부유한 외국인들도 가세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시사지 애틀랜틱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백신 여행'이 늘고 있다. 독일에서 사는 미국인 아리안 드비어는 당초 이스라엘인 남편과 함께 자신들의 백신 순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려 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족친구들이 백신을 맞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반해,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반의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자 이런 결정을 바꿨다. 이들 부부는 올 여름 각자 모국으로 돌아갔다가 백신 접종을 다 마친 뒤 독일로 돌

아오는 여행 계획을 세웠다.

드비어는 지난해 너무나 많은 것을 삼키며 지냈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여행하는 일은 온당하지 않은 일로 느껴졌으며 "백신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반문했다.

애틀랜틱은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고국의 성공적인 백신 접종 동향을 보며 비슷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해외에 사는 미국인들은 900만명에 달한다.

은퇴한 뒤 스페인에서 사는 세릴 윌링(61)은 자신이 살던 애리조나의 미국인들이 "이쪽저쪽에서 다 백신을 맞고 있더라"라며 "질투가 난다. 너무도 질투가 난다"고 말했다. 윌링은 다음 달 15일 두 차례 갈 아타야 하는 애리조나주 투손행 항공편에 남편과 함께 몸을 싣기로 했다. 백신을 맞기 위해서다.

이처럼 일부 미국인이 이미 고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지만, 일부는 남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여분의 백신을 해외 자국민들에게 보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인들의 백신 수요를 충족한 뒤 남은 백신을 나누겠다고 거듭해서 밝힌 가운데 이들 국의 체류자들은 왜 자신들이 제외돼야 하는지 의아해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해도 고국에

세금을 내야 하고 투표권도 부여받는다든 점 등을 들어 정부가 해외 국민에게도 백신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틀랜틱은 미국으로 돌아갈 경우 의료보험이 없고,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조치 가능성이 있는 데다 자칫 자신이 살던 외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도 많은 미국인에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데 따른 이익이 위험을 능가한다고 지적했다.

WSJ도 많은 이에게 면역 효과와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백신이라는 보상이 고국으로의 긴 여행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으로 백신 여행을 오는 것은 이처럼 미국인만이 아니다. 부유한 외국인들도 백신을 맞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다. 멕시코 북부 몬테레이에 사는 치과의사 알레한드라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친구 주소를 빌려 인터넷으로 접종 신청을 한 뒤 지난 주말 휴스턴으로 날아가 모더나 백신을 맞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러 미국으로 가는 중남미인은 알레한드라 뿐만 아니라, 많은 중남미인이 언제 백신을 맞을지 기약이 없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연합뉴스



독일 시내 활보하는 경비로봇 '스포트' 개처럼 움직이는 경비 로봇 '스포트'가 20일(현지시간) 독일 튀링겐주의 주도 에어푸르트의 광장에서 한 시민이 데리고 나온 애완견 옆을 지나가고 있다. 이 로봇은 경비 서비스 업체인 시보리우스가 인공지능과 고해상도 전방위 카메라와 광원탐지시스템 등을 갖춘 솔루션으로 선보인 것이다. /연합뉴스

한인 노부부 '묻지마 구타' 당해 미 20대 남성, 증오범죄로 체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국계 노부부를 공격한 20대 남성이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20일(현지시간) 일간 USA 투데이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등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오렌지시 경찰은 79살 한국계 할아버지와 그의 80살 한국계 아내를 폭행한 마이클 비보나(25)를 증오범죄와 노인 학대 혐의로 붙잡아 구금했다. 경찰에 따르면 비보나는 지난 18일 오렌지 공원에서 산책하던 한인 노부부에게 접근해 이들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트렸다.

가해자는 한인 노부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이유도 대지 않은 채 '묻지마 공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비보나를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구급대원들이 노부부를 응급 치료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노부부에게 차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관의 제안을 사양하고 혼자 힘으로 귀가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비보나는 이번 폭행 사건에 앞서 일본 도쿄 올림픽에 가라데 종목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일본계 미국인 코쿠마이 사쿠라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보나는 지난 1일 공원에서 운동하던 사쿠라에게 접근해 "역겨운 중국인,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등 인종차별 발언과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집요하게 괴롭혔다. 경찰은 한인 노부부 폭행 사건과 함께 이 사건에도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플로이드 사건' 유죄 판결에 지폐 뿌리는 미국 남성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법원에서 20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데릭 쇼빈 전 경관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바심 사브리란 이름의 한 부동산업자가 인근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광장에서 1달러짜리 지폐를 공중에 뿌리며 좋아하고 있다. 배심원단은 이날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된 쇼빈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쿠데타로 '산업 붕괴' 위기

봉제 근로자 20만명 실직 건설 등 부분으로 고용위기 확산

미얀마가 핵심 산업인 의류봉제업 종사자 20만 명이 군부 쿠데타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는 등 산업 전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최근까지 의류봉제업에 종사하는 직원 20만명이 실직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류봉제업은 한때 최소 7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미얀마의 핵심 고용창출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20만명이 실직하는데 이어 쿠데타 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생존의 기로에 처했다.

유럽연합(EU)의 경제 제재로 주요 수출국인 유럽 시장 판로가 막히자 미얀마에 생산기지를 두

고 있는 H&M과 넥스트 등 글로벌 의류 브랜드들은 현지 철수를 단행중이다.

미얀마 군경이 연일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유혈진압하자 생명이 위협을 느낀 많은 노동자들도 공장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직장에 남은 노동자들도 생산량이 축소돼 실질 임금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쿠데타발 경제 리스크는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 중이다.

주요 건설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면서 30만명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일반노동직부터 사무직까지 포함해 민간부문에서 수백만명이 고용 위기에 노출됐다. 군부의 인터넷 차단으로 인해 그림, 푸드 판다 등 인터넷 기반 업체들은 영입이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다수의 공공기관 및 금융권 종사자들이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 직장을 떠나 시민불복 운동(CDM)에 동참하면서 미얀마 경제는 총체적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아마존 미용실도 한다... 런던에 초대형 점포

증강현실로 염색 색깔 선택 다양한 IT 기술 미용실 운영 적용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온 미국 대기업 아마존이 첫 미용실 점포를 영국 런던에서 개설했다.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경제매체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금융 중심지구인 '시티 오브 런던' 인근 빌딩 2개 층에 '아마존 살롱'이라는 점포를 마련, 우선은 주변 아마존 영국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주 내에 일반인들의 예약을 받을 계획이다.

점포 면적은 140㎡로 큰 대형 공간이다.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증강현실 기술로 머리 염색 색깔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IT 기술을 미용실 운영에 적용할 방침이다.

아마존은 "이용자들이 최상의 기술과 헤어케어 용품,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용실을 설계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시험할 장소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 온라인 서점으로 출발한 아마존은 현재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클라우드 컴퓨팅, 음악 스트리밍, 게임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과 함께 무인마트 등 사업 영역을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영역의 소상공인을 위협하면서 사업을 독점해가고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